

(2026년 8월 4일 화요일 5면)

채승우 송파구의원(더민주, 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

첫 공식 의정활동으로 옛 성동구치소 개발부지 현장점검

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은 7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첫 공식 의정활동으로 옛 성동구치소 개발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 관계자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채 의원은 SH공사로부터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공사계획, 현장 안전관리 및 주민 민원 대응 방안 등에 관한 브리핑을 청취한 뒤 사업부지와 주변 지역을 직접 둘러봤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공동주택을 비롯해 문화·복지시설과 공공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인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로 향후 가락2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과 생활 기반시설에 큰 변화를 가져올 주요 현안이다.

채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차량의 진·출입 경로와 운행시간 관리, 어린이 통학로와 보행자 안전대책 등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이 주민 의견 수렴 방식과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특히 채 의원은 SH공사와 송파구청 관계자들에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이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시간과 소음 발생 공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공사차량 이동과 공사 소음, 분진 및 교통혼잡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민원이 제기될 경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채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SH공사와 송파구가 지역주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민원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현장 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획된 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하는 것만큼 공사기간 동안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SH공사 및 송파구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